

# 학교본부 독단적 결정 못한다

## 위원회 보조할 부서도 신설

(1면에서 계속)

이외에도 각 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전담부서 또한 신설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학내 신입생 문화 등을 학교와 논의하는 자긍심 위원회, 교무처와 총학이 참여해 재수강 및 계절학기 제도의 개선안을 만들어 교과위에 상정하는 학부 학사환경개선위원회 등이 있다.

각종 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장 그 사실만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2007년과 같이 학우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본부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체계가 급변하는 상황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학교 사회에서 학우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올해 제26대 학부 총학생회 선거의 화두는 '소통'과 '참여'였다. 지난 봄, 4월사태를 겪으며 학우들은 단절된 소통의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비상학생총회와 총학 설문조사를 통해 공론화되고 구체화되었다. 학우와 학교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참여가 보장되는 학교 사회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맹주성기자  
gobul21@kaist.ac.kr

# 술비양상태 호전... 일반실로

## 합산 모금액, 2억 원 모여

지난 7월 인천 부개동 화재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우리 학교故김건 학우의 동생 김술비(17, 가명) 양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다.

큰 고비를 넘긴 김 양은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병실을 옮긴 상태다. 얼굴을 답답하게 감싸고 있던 붕대도 풀었다. 최근에는 손상된 근육을 움직이는 치료를 받고 있다.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다음 달 초에는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친지들은 김 양의 회복을 위해 부모와 오빠가 화재로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왔다. 김 양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된 9월 하순 경, 계속

되는 김 양의 물음에 친지들은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김 양은 화상 및 가족과의 이별로 받은 충격을 치유할 신경정신치료도 겪어야 한다. 물어버린 근육과 굳게 닫힌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지면 고등학교에 복학할 계획이다.

한편, 김 양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인방송과 다음 '희망해' 등을 통해 진행된 모금 결과 현재까지 2억 4백만 원 가량이 모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와 학생처가 공동으로 모금을 벌인 바 있으며,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도 자체 모금활동을 해 병원에 전달했다.

손하늘기자  
press@kaist.ac.kr

## 제26대 학부 총학생회장단 김도한·김승환 당선인 인터뷰

# “하나되어 참여하는 학생사회를”

### 앞으로 제26대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학우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총학이 되고 싶다. 학우 한명 한명의 마음을 얻고 싶다. '올인원'이라는 이름처럼 하나가 되는 학생사회를 만들 것이다. 과를 중심으로 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총학생회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는 학부 총학생회가 될 것이다. 동아리 정모, 수업 청강 등 학우들과의 스킨십에 주력하고 싶다. 하루하루 선거운동하는 마음으로 학생회 활동을 할 것이다.

### <올인원>이 평가한 <우리누리>는?

4월사태와 같이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고,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며 많은 일을 이뤄내서 수고했다고 전

하고 싶다. <우리누리>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 소통에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올인원에서 개선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공약이 있다면

사실 모든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 우선도는 중요하지 않다(웃음). 무엇보다도 대학평의회를 설치해 학우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을 우선시할 것이다. 문화, 복지 관련 공약 중 일부는 1년 내에 이루기 어렵다. 멀리 보며 활동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천극장에 문화복합건물은 입기 내에 시공계획이라도 하여 모든 공약을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선거 운동 중 어려웠던 일은

선거 전에 경고 2회를 받았다.

선거 시작부터 출마할 수 없다는 걱정 했다. 운동원을 최대한 줄였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극적일 밖에 없었다. 하지만 열심히 참여했고 과정을 즐기려 노력했다.

### 선거 운동 중 느낀 학생사회의 여론은

학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에 관심이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는 학우들을 여럿 보았다. 이런 학우들을 끌어낼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 어떤 총학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입기를 끝내고 학우들에게 물었을 때 총학생회가 친구와 같이 친근했다고 말했으면 한다.

정리/박소연 기자  
soyapark2535@kaist.ac.kr



<올인원>의 김도한 정후보(좌)와 김승환 부후보(우)가 매점 앞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 구건모기자

# 490(For Ninety) 총학 산하 특별기구 되나 동연 선거, 오늘 밤 당선인 발표

학생생활처 산하 자치기구로 많은 논란이 일었던 490(For Ninety)가 논란을 종식하고 본래 학생 생활지원에 대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산하 특별기구로 들어갈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관련 기사 356호 '490(For Ninety) 학생지원활동 연기')

지난달 9일 490는 발대식을 갖고 학우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리더십센터의 지원을 받아 출범했으나 ▲총학의 예산자치회와 차별화된 점이 없고 예산 심의 행정기구 및 운영계획이 없다 ▲490가 독립적인 자치단체로 운영되면 정체성이 애매해 기존 학생사회의 체제를 혼란시킬 수 있다 ▲490에 대한 완전한 정관 등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며 활동이 연기된 바 있다.

'총학의 예산자치회와 차별화된

점이 없고 기존 체제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490 측은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버리고 총학 산하 특별기구로 편입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490의 기획을 담당할 이상형 학우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큰 안건은 자치단체라는 타이틀이 아닌, (학생 봉사활동 지원금에 대한) 예산 심의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학우는 또한 "학우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총학의 예산자치회와의 차별성이 떨어지는 점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유지 문제를 고려해 볼 때, (490가) 총학에 합류하는 방향을 현 총학 및 차기 총학과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혀, 490가 총학 산하 특별기구가 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곽영출 총학 회장은 490가 총학 산하 기구로 편입되는 방안

“490가 독립된 자치기구로 존립하기에는 동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라며 “490를 예산자치회와 같은 특별기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도한 제26대 총학생회장 당선인도 “490와 선거운동본부 사이에 논의가 된 내용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관 수립 및 활동 시행 계획이 미흡하고 490에 소속된 단체와 동아리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학우는 “490의 단체 모집의 개념은 학생 봉사 프로젝트 계획을 가진 단체를 봉사단 형식으로 모집한다는 것이지 소속의 개념은 아니며, 앞으로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박찬우기자  
times11@kaist.ac.kr

## 원총은 후보 없어 선거 연기

총학 선거가 치열한 접전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경선으로 진행된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가 지난달 28일 선거 운동 이후, 본격적인 회장단 선거가 진행되었다. 선거는 동연내에서 75개 동아리 대표자와 11개의 분과장만이 선거권을 가지는 간접 선거로 어제 오후 10시에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지난 5일 밤에 발표되었다.

동연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등록기간을 가지고 손성빈 학우를 정후보로 하고 현지훈 학우를 부후보로 하는 <교감>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와 이진환 학우를 정후보로, 박영선 학우를 부후보로 하는 <동화> 선본의 후보자 접수를 완료했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되지 않은 동

연 선거에 대해 최정은 동연 회장은 “동연 선거가 경선으로 진행된 것이 정말 오랜만이다. 단선이 아닌 경선으로 진행되는 선거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는 원총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없어 선거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원총 선관위는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모집을 진행했지만 등록한 후보가 없어 선거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관련 기사 356호 '원총·동연 회장단 선거 돌입')

안상현 원총 회장은 “출마한 후보가 없어 이달 중순에 각 학과 대표를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진행해 차후 일정을 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민성기자  
johnsong92@kaist.ac.kr